

2026년 7월 24일

Hana FX Daily Letter

한은 매파 기조에 힘 실리는 이유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유가 급등 및 연준 긴축 우려로 인한 글로벌 강달러에 상승**
daily range 예상: 1,470~1,483원

■ 미국의 이란에 대한 지속적인 공습 속에 대규모 추가 공격 검토 소식과 홍해 지역 불안이 더해지며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선 수준으로 상승했음.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경계감이 고조되며 미 국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 이는 달러 강세와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하여 환율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470원대 중후반을 중심으로 등락할 전망

■ **전일 동향 : 23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3.3원 내린 1,474.2원에 마감**
중동 리스크 여파 속에 1,470원대 후반으로 상승 출발. 이후 한국 GDP 호조와 수출업체 매도물량 출회,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 등에 가파르게 낙폭을 확대하며 1,466.8원에서 주간 거래를 마감. 하지만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유가 급등에 따른 연준 긴축 우려와 강달러 반영되며 1,470원대 중반으로 반등해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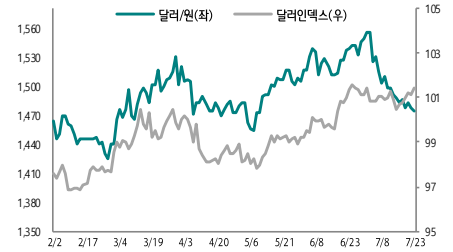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중동 리스크 확대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미 실업지표 개선 등에 연준이 조기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자 달러는 강세를 나타냄
- (유로-달러) ECB가 금리 동결 후 9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매파적 태도를 취했음에도, 예상에 부합했다는 인식 속에 유로화는 약세를 보임
- (달러-엔) 일본 외환당국의 잇따른 구두개입으로 실개입 경계감이 고조되었으나, 중동발 유가 불안과 미 국채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엔화 약세 폭은 오히려 확대됨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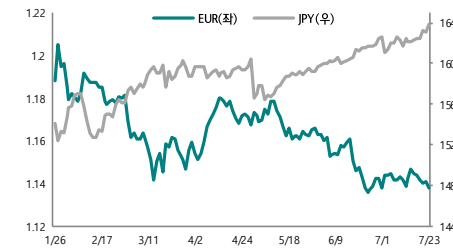
■ 최근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깜짝 성장을 기록하며 연간 3%대 성장을 달성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3.7%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0.4%, 3.5%)를 웃돌았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악재 속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전례 없는 호조를 보이며 성장을 견인한 덕분.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 GDI가 전분기 대비 3.6%,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하며, 우리 경제의 실질 소득 여건도 탄탄함을 입증했음. 이처럼 견조한 성장 모멘텀이 유지되는 가운데, 중동발 유가 불확실성에 따른 물가상방 리스크는 여전한 양상임. 상기 대내외 여건상 한은의 매파적 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가 긴축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지난 FOMC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이 강화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 하지만, 한은의 동반 매파 행보가 예상됨에 따라 한-미 금리 격차 확대 부담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 이는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단기적으로 환율은 1,450원선을 하회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478.0	1,479.0	1,465.1	1,475.2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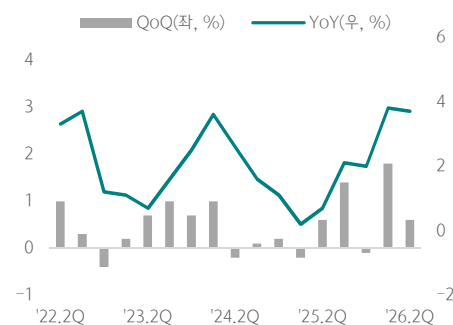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376	163.85	6.7779
전일대비	-0.0035	+0.71	+0.0031
재정환율	1,675.33	898.75	217.91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08:30	일본 6월 CPI(YoY)	1.7%	1.5%
15:00	영국 6월 소매판매(MoM)	-0.3%	1.2%
22:45	미국 7월 S&P글로벌 제조업 PMI	54.4	53.9
	미국 7월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51.5	51.2

한국 GDP 성장률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